

포름알데히드 최소화 접착제 개발

릭스노블, 측정 가능한 최저치 미만 ... 새집증후군 대응으로 주목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성분이 거의 없는 친환경 접착제가 개발됐다.

접착제 전문 개발기업인 릭스노블은 냄새와 독성이 없는 친환경 <릭스(LIKS)접착제>를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3월25일 발표했다.

릭스노블에 따르면, 릭스접착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측정 가능한 최저치인 0.005mg/m³ 미만이었다.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도 측정장비로 잡아낼 수 있는 최소 수치인 0.020mg/m³ 미만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하이드와 TVOCs는 산업용 접착제에 다량 함유돼 새집증후군과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릭스노블은 2010년 안에 릭스접착제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건축 시공용과 가구 제작용 등으로 시판할 계획이다.

발명가이기도 한 박재후누 대표가 경기도 평택에 설립한 릭스노블은 700℃의 고온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변형도 거의 없는 불연 스티로폼 <릭스패널>과 방수가 되는 <릭스시멘트> 등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5>